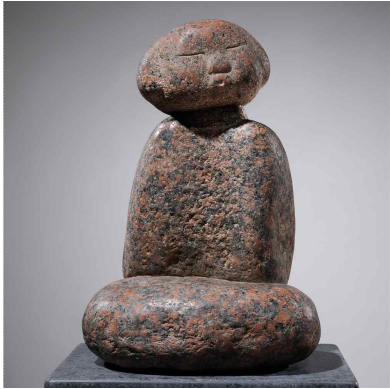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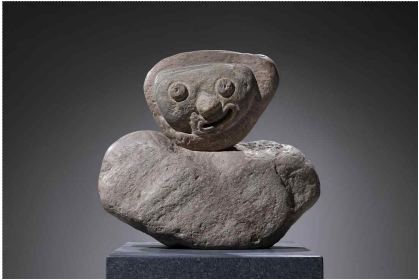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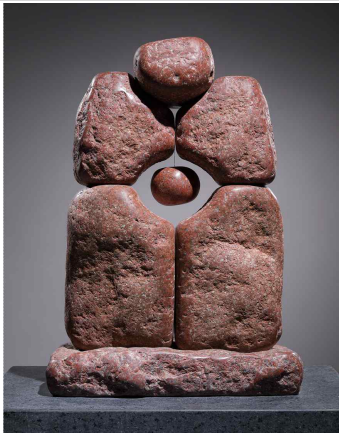


Frieze Seoul 2026 List of Works

- Name of the Gallery: Space Tone (스페이스 톤) / Venue: MP9
- Name of the Artist: Han Jin Sub (한진섭)
- Number of Works: 7 stone sculptures and 1 table-and-stool set (8 works in total)

	Artwork Title	Image and Dimensions(cm) (W × D × H)	Year (Created in)	Material
1	평화 Peace	 120x58x90 300kg (661.4 lb)	2007 (Korea)	대리석 Travertine
2	기원 Primordial Origin	 33x30x48 35kg (77.2 lb)	1990 (Italy)	화강석 Granite
3	당신 곁에 By your Side	 58x23x54 55kg (121.3 lb)	1989 (Italy)	화강석 Granite
4	공허한 생각 Empty Thoughts	 53x70x97 200kg (440.9 lb)	1997 (Korea)	대리석 Travertine

	Artwork Title	Image and Dimensions(cm) (W × D × H)	Year (Created in)	Material
5	태고의 모습 I Primordial Form I	 25×13×49 30kg (66.1 lb)	1987 (Italy)	대리석 Marble
6	마음의 소리 I Voice of the Heart I	 58×30×72 120kg (264.6 lb)	1989 (Italy)	화강석 Granite
7	소 Ox	 40×33×77 60kg (132.3 lb)	1993 (Korea)	현무암 Basalt
8	테이블과 의자 Table and Stools	 table 160x65x60 stools 30x30x35	2025 (Korea)	화강석 Granite

Description by work

1. 평화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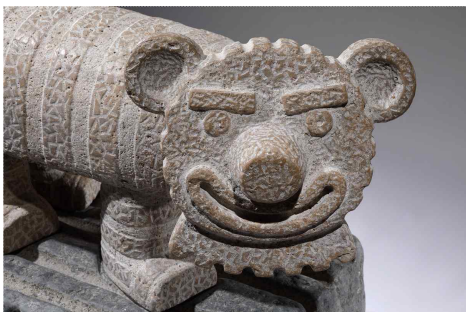
대리석 Travertine / 120x58x90, 300kg (661.4 lb) / 2007

일체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진 자리에 멋진 턱수염을 한 호랑이가 인간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단 몇 개의 줄무늬로 조각된 몸통과 히죽 웃고 있는 사이로 이빨을 숨긴 호랑이는 평화의 수호신이 되어 우리의 얼굴과 맞대어 볼을 비빈다. 해학이라고 해도 좋고, 순박함이라 불러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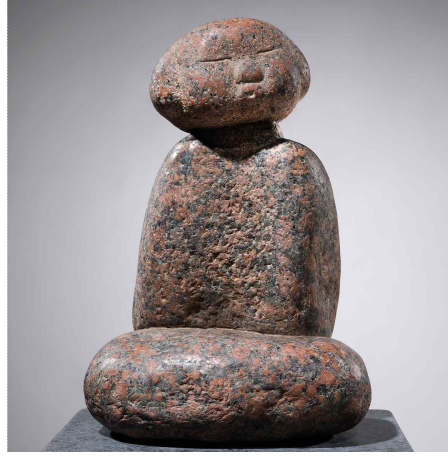
한진섭의 마음에 가득 찬, 결코 사라지지 않을 소년의 꿈이 돌의 미학으로 굳건하다. 아이의 머리를 쓰담 듯이 호랑이의 콧등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평화를 감각할 수 있다. 해부학적 접근이 아닌, 생략 기법으로 존재의 자기다움을 실현했다. 동물적 권위와 야생성을 지우고 인간의 공동체로, 이웃으로 다가온 호랑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로 환생했다.

In a place where all conflict and division have vanished, a tiger with a magnificent beard looks out over the human world. With a body defined by only a few carved stripes and teeth concealed behind a mischievous grin, the tiger becomes a guardian of peace, pressing its face against ours and affectionately rubbing cheeks with us. Call it humor or simple-hearted innocence.

Han Jin-sub's enduring boyhood dream, alive within him and destined never to fade, finds solid form in the aesthetics of stone. We can sense peace simply by running a hand over the bridge of the tiger's nose, as though gently stroking a child's head. Rather than pursuing anatomical realism, the artist realizes the creature's essential character through simplification. Stripped of its animal authority and wildness, the tiger enters the human community as a neighbor, reborn as our eternal friend.



2. 기원 Primordial Ori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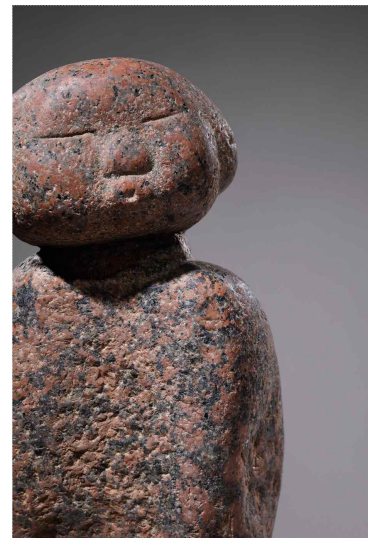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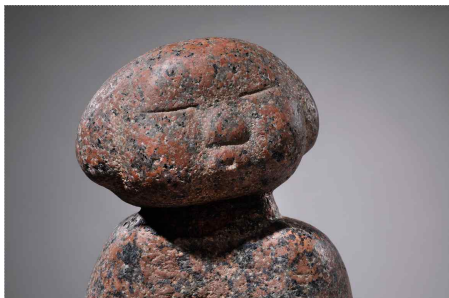
화강석 Granite / 33x30x48, 35kg / (77.2 lb) / 1990

이 작품은 우리 곁에 오기 천만 년 전부터 태양의 에너지와 풍파, 물의 마찰로 조각된 채 바닷가를 서성이던 막돌이 한진섭을 만났다. 자연이 빚은 돌의 질감과 생명성에 최소의 간섭으로 3등신 조각을 완성했다. 오므린 작은 입술이 내뿜는 호흡은 인간의 본성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로 전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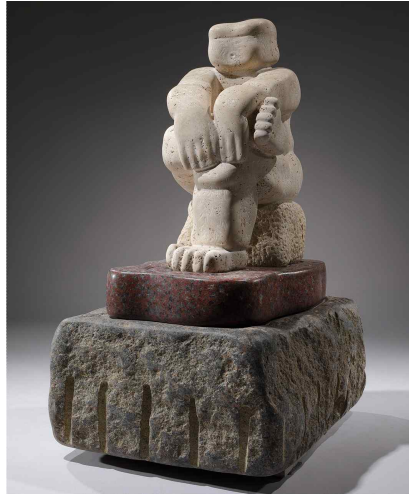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환원되기를 바라는 조각가의 기원이 돌의 세포에 스며들었다. 이기적 유전자로 뿔뿔 뿔친 인간의 속성은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짓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냈다. 눈, 코, 입에 압축된 무기교의 기교는 평화를 꿈꾸는 작가만이 근접할 수 있는 정직한 조각이다.

Long before this stone came into our presence, it had wandered the seashore for ten million years, shaped by the sun's energy, the forces of nature, and the friction of water—until it encountered Han Jin-sub. With minimal intervention in the texture and vitality formed by nature, the artist completed a figure whose head-to-body proportion is one to three. The breath released through its small, pursed lips transforms into a whistle calling us back to our human essence.

Where are you and I—where are we all—and how are we living? The sculptor's wish that we return to our fundamental humanity permeates every cell of the stone. It embodies the hope that human beings, bound by selfish genes, might build the shelter of community and learn to live together. Condensed into the eyes, nose, and mouth, its artistry concealed within artlessness gives rise to an honest sculpture that only an artist who dreams of peace could approach.



3. 공허한 생각 Empty Thou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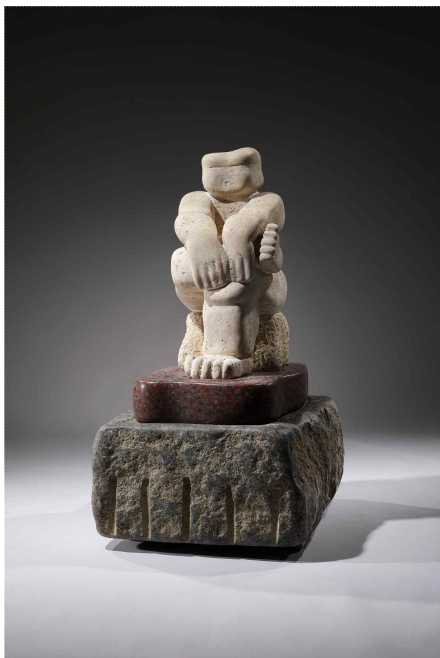
대리석 Travertine / 53x70x97, 200kg (440.9 lb) / 1999

젊은 시절, 작가는 스스로의 우상이 되기로 맘먹고 조각한 작품이다. 무릎을 감싼 큰 손은 청년 작가의 위풍당당이, 살아 꿈틀거리는 근육에서는 자신감이 흘러넘친다. 표정이 삭제된 얼굴조차 여유만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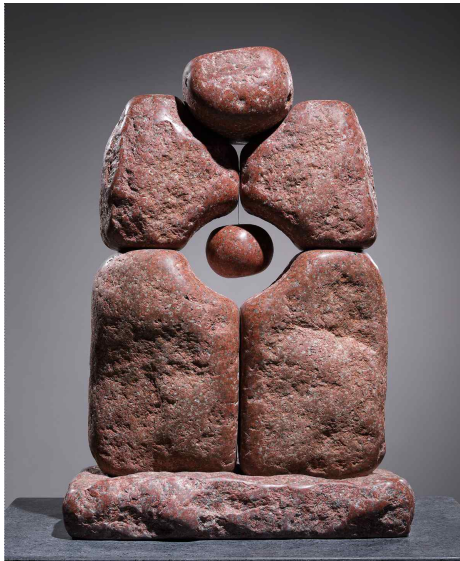
단단하게 응축된 조각은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추상과 구상의 접점에서 탄생한 작품은 압도적 미학으로 시선을 이끈다. 몸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진 작은 돌구멍은 사실성을 강조한다. ‘공허한 생각’은 젊은 패기에 대한 관조의 의미로 쓰인 것이지 결코 반성의 고백이 아니다.

In his youth, the artist created this work with the resolve to become his own idol. The large hands clasped around the knees convey the young sculptor’s commanding presence, while confidence surges through the vividly articulated muscles. Even the face, stripped of expression, appears utterly self-assured.

The sculpture is carved from a single block of stone, its form compact and powerfully condensed. Emerging at the intersection of abstraction and figuration, the work commands attention through its imposing aesthetic presence. Small cavities scattered across the body heighten its sense of realism. The title Empty Thoughts suggests a contemplation of youthful audacity; it is by no means a confession of regret.



4. 마음의 소리 | Voice of the Hear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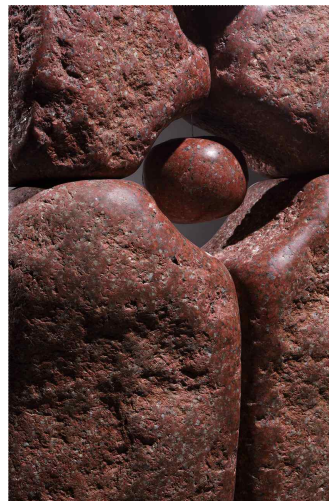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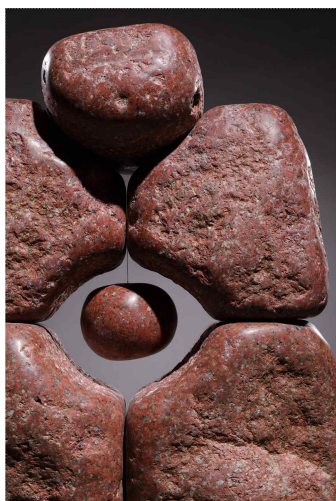
화강석 Granite / 58×30×72, 120kg (264.6 lb) / 1990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Parmenides), ‘없는 것도 있는 것만큼 있다’(Democritos). 단일한 존재만 인정하고 변화와 공백을 부정한 ‘파르메니데스’는 공백도 존재의 한 형태로 삼은 ‘데모크리토스’의 설득 앞에 몸을 낮춘다. ‘마음의 소리’는 채우고 다시 비워내는 동양철학의 정중동(靜中動) 사상의 대중적 메시지다.

가운데 심장이 흔들리려면 사위의 몸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한진섭의 돌조각 중 유일하게 유동성을 가진 특별함을 가진 조각 작품이다. 자연석의 고유함과 작가의 사상이 합일을 이룬 이 작품은 ‘본다는 것’의 영원성과 생명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정의한다. 또한 소리와 의미 사이에 실존하는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

“What is, is; what is not, is not” (Parmenides). “What is not exists no less than what is” (Democritus). Parmenides, who acknowledged only a single, unified being and denied both change and the void, yields before Democritus, who understood the void itself as a form of existence. Voice of the Heart conveys, in accessible form, the Eastern philosophical idea of stillness within movement (靜中動)—a continual process of filling and emptying.

For the heart at the center to move, the body surrounding it must remain still. This is a singular work among Han Jin-sub’s stone sculptures, distinguished by its capacity for movement. Bringing the inherent character of natural stone into unity with the artist’s thought, the work considers how the timelessness and vitality of “seeing” come into being. It also asks us not to overlook the presence of the invisible—that which exists between sound and meaning.



5. 소 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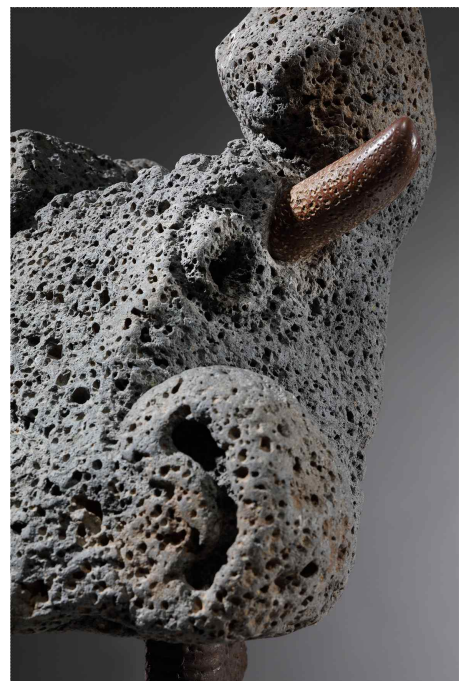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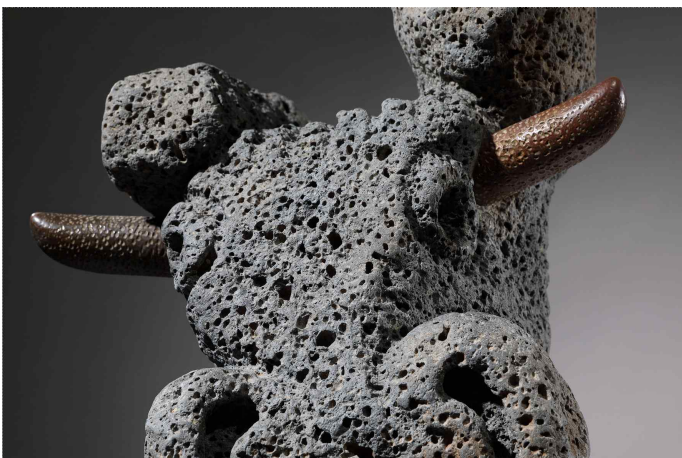
현무암 Basalt / 40×33×77, 60kg (132.3 lb) / 1990

제주 현무암은 용암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식어 만들어진 광물이다. 그래서 돌의 내부에 다소 큰 다발성 기공이 존재한다. ‘소’는 현무암의 물질, 물성을 탁월하게 해석해서 조각한 것으로 돌의 본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 작품은 작가 특유의 감성이자 주제 의식인 해학과 다정다감한 세계관이 농후하게 스며들어 있다. 점박이 소의 얼굴에 피어나는 천진난만한 표정은 만인의 웃음을 상징하고, 고된 삶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긍정의 인생관을 심어준다. 작가는 자기 속으로 불러들인 자연석에, 자기를 세계에 내어주었다.

Jeju basalt is formed when lava cools rapidly over a short period, leaving relatively large clusters of pores within the stone. In *Ox*, Han Jin-sub demonstrates a remarkable understanding of basalt as both material and matter, revealing the stone's inherent nature in its entirety.

The work is deeply imbued with the artist's distinctive sensibility and thematic vision—his humor and warm-hearted view of the world. The guileless expression blossoming across the spotted ox's face symbolizes universal joy, while inspiring a positive outlook grounded in living earnestly despite life's hardships. The artist drew the natural stone into himself and, in return, offered himself to the world.



6. 태고의 모습 I Primordial Form I



대리석 Travertine / 25×13×49, 30kg (66.1 lb) / 1987

대중의 근원적 얼굴을 묘사한 작품이다. 대리석을 잘게 쪼개고 다시 이어 붙여 완성한 이 조각은 한국의 대표적 조각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맥락과 맞닿아 있는 매우 유의미한 작품이다. 또한 생로병사의 고통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묵묵히 이행하는 해탈의 경지를 관조할 수 있다.

‘존재는 불필요하게 증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가. 부분이 전체가 되어 유기적인 존재를 이루는 이 작품은 조각가의 탄탄한 내공이 아니고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특히 흰 눈자위를 음양으로 새겨 고통의 질량을 덜어낸 점은 이 조각의 백미(白眉)다. 보는 이의 감정에 따라 무한정 시각의 변화를 주는 것에서 이 작품의 진가를 재확인할 수 있다.

This work portrays the primordial face of humanity. Created by breaking marble into small pieces and reassembling them, the sculpture i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its connection to Korea’s iconic Pensive Bodhisattva. It also invites contemplation of a state of liberation in which the sufferings of birth, aging, illness, and death are calmly accepted and quietly endured.

“Entities should not be multiplied unnecessarily,” as the saying goes. In this work, individual parts become a whole and form an organic being—a feat that would be impossible without the sculptor’s profound mastery. Its most striking feature is the use of the yin-yang motif in the whites of the eyes, which lightens the weight of suffering. The work’s true value is reaffirmed in the way its appearance shifts endlessly according to the emotions of each viewer.



7. 당신 곁에 By your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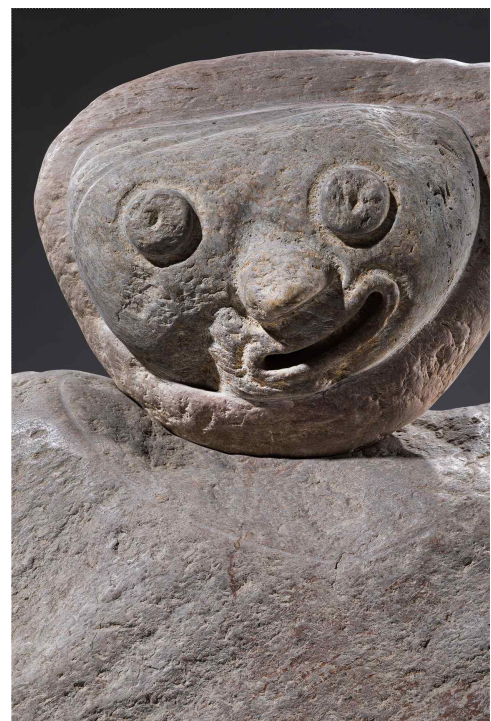
화강석 Granite / 58x23x54, 55kg (121.3 lb) / 1989

세속을 달관한 얼굴에는 삶의 욕망을 달관한 시선이 난무하고, 헛웃음과 정감이 농후하다. 하지만 굳은 어깨에는 끝 모를 시름과 한숨이 배어있다. 화강석에 새긴 어느 무명인의 무한대의 표정이 돌만큼이나 무거우면서도, 한없이 정겨운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가. 쓸모없는 것들에 살과 피가 흐르고 생명의 뿌리가 소생한다.

한진섭의 해학은 끝내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인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난감한 표정 속에 오래 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 자락이 바람에 휘날린다. 돌의 모서리마다 우리의 인생이 넘실거린다.

The face, detached from worldly concerns, is animated by a gaze that has transcended life's desires and is steeped in wry laughter and affection. Yet the rigid shoulders carry traces of endless sorrow and sighs. Why is the infinite expression of this anonymous figure carved in granite at once as heavy as the stone itself and so deeply endearing? Flesh and blood begin to flow through what was once deemed useless, and the roots of life are revived.

Will Han Jin-sub's humor ultimately attain a state of liberation? Within the uneasy expression, suspended somewhere between laughter and tears, fragments of our fathers' and mothers' lives from long ago flutter in the wind. Our own lives ripple across every edge of the stone.



8. 테이블과 의자 Table and Stools



Table 화강석 Granite / 160x65x60 / 2025

Stools 화강석 Granite / 30x30x35 / 2025

회전판을 중심으로 상판이 돌아가는 구조의 의자로, 사람이 앉은 모습을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 안에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섬세하면서도 위트 있게 담아낸 한 쌍의 작품이다. 작가는 세상을 남과 여, 하늘과 땅, 물과 불처럼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음과 양의 관계로 바라본다.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두 존재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세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과 인간의 관계로도 확장된다. 효율과 자동화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예술과 문학, 신체 활동처럼 인간의 감각과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가치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이 의자들은 단순한 가구를 넘어 이러한 화합의 세계관을 담아낸 조각으로, 무겁고 견고한 돌 위에 앉아 상판을 회전시키는 경험을 통해 일상적인 행위를 새로운 감각으로 전환한다.

Structured around a swivel mechanism that allows the upper section to rotate, this pair of chairs incorporates masculine and feminine characteristics with subtlety and wit into flowing curves reminiscent of the seated human figure. The artist views the world through complementary relationships—man and woman, heaven and earth, water and fire, or yin and yang. Neither side takes precedence; rather, the world becomes whole when opposing forces are valued equally and brought into harmony.

This perspective also extend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humanity. As efficiency and automation increasingly shape our lives, the artist emphasizes the enduring importance of values rooted in human perception and imagination, as embodied in art, literature, and physical activity. More than functional furniture, these chairs are sculptures that express his vision of harmony. The experience of sitting on solid, weighty stone and rotating the upper section transforms an everyday action into a new sensory encounter.

